

광주FC 첫 준프로 김윤호 프로 계약… K리그 정복 나선다

금호고 2학년 때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U18 대표팀 발탁도 같은 학교 공배현·김용혁·정규민도 콜업…젊은 피로 전력 강화

광주FC 첫 준프로 선수인 김윤호의 '진짜 무대'가 시작된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 산하 U18 금호고의 김윤호와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윤호는 금호고 2학년이었던 지난해 7월 구단 역사상 첫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2007년생인 그는 지난해 9월 22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17세 4개월 9일'이라는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태국 코사무이에서 진행된 광주 동계훈련에도 참가해 프로를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올 시즌 U18 대표팀에도 발탁된 김윤호는 6월 22일 대전과의 홈경기에 교체 출전하는 등 K리그 2경기를 뛰었다.

190cm·80kg의 장신 공격수인 김윤호는 포스트 플레이 뿐 아니라 날카로운 킥패스가 돋보이는 전

천후 공격수다. '공간 침투 능력'도 그의 강점이다.

김윤호는 "골을 넣기 위해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침투형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한다. 침투적으로 움직임을 많이 한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호로 공격진 옵션을 확장한 광주는 올 시즌 금호고 질주를 이끈 공배현(DF·18), 김용혁(DF·18), 정규민(MF·18)도 콜업했다.

공배현과 김용혁은 각각 187cm와 188cm의 장신 중앙 수비수로 나란히 금호고 뒷문을 지켰다.

공배현은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빠른 판단력과 인터셉트 능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변수수를 톨모델로 꼽은 공배현은 "하루빨리 데

뷔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역시 제공원에서 강점을 보이는 김용혁은 큰 키에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커버와 양발을 활용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다.

안영규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한 김용혁은 "팀에 빠르게 녹아 들어 좋은 활약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정규민은 원발잡이 중앙 미드필더로 금호고 '에이스'로 올 시즌 질주를 이끌었다.

정규민은 뛰어난 킥 능력을 바탕으로 볼배급과 탐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기대를 모은다.

신장무를 주목하고 있는 정규민은 "광주에 합류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다.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금호고는 이들의 활약을 앞세워 올 시즌 K리그 주니어 C구역 U18·U17 통합 우승, 전국 고교 축구 리그 왕중왕전 준우승, K리그 주니어 후기 상위스플릿 준우승 등의 성과를 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와 프로 계약을 맺은 금호고 김윤호가 최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FC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K리그1, 2027년부터 14팀 체제…최대 4팀 '승격'

프로축구연맹, 김천상무 K리그2 강등·승강 플레이오프 도입 등 의결

K리그1가 2027시즌부터 14개팀으로 운영된다. 내년 시즌 K리그2에서는 17개팀이 우승경쟁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일 2025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2027시즌 K리그1 참가 팀 수 확대 ▲2026시즌 승강 방식 결정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후 참가 리그 결정 ▲선수 표준 계약서 개정 ▲전북 타노스 코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 결과 2027시즌부터 K리그1 참가 팀이 12개에서 14팀으로 증가한다.

이번 결정은 1·2부팀 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K리그2 상위권 구단의 매출, 관중 수, 선수단 연봉 등 각종 지표가 K리그1 중위권 수준에 근접하는 등 1·2부간 격차가 줄어든 점이 고려됐다.

K리그1팀 확대에 앞서 내년 시즌 K리그2에 3개 팀이 가세하면서 K리그 전체 팀은 29개(K리그 1 12개, K리그2 17개)로 늘어난다.

앞서 K리그2는 2021시즌 10개 팀에서, 2022 시즌 11개, 2023시즌 13개, 2025시즌 15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K리그1은 2014시즌부터 12개 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2027시즌에는 14개 팀이 K리그

1에서 대결한다. 리그는 3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39라운드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팀 증가에 따른 2026시즌 승강 방식도 결정됐다. 일단 연고 협약 만료에 따라 2026시즌이 끝난 뒤 김천상무는 K리그2로 자동 강등된다. K리그2 1·2위 팀은 자동 승격되고, 3~6위 팀은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팀을 결정하게 된다.

김천상무의 성적에 따라 K리그2에서 3개 또는 4개 팀이 승격 기회를 얻는다.

김천상무가 2026시즌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할 경우 추가 강등팀은 없다. 승강플레이오프도 진행되지 않아 3개 팀이 승격 자격을 얻는다.

김천상무가 최하위가 아닐 경우 K리그1 최하위 팀이 승강플레이오프에 참가해 '잔류'를 놓고 승부를 해야 한다. K리그1 최하위팀은 K리그2 '승격 결정전'에서 패한 팀과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된다.

2026년을 끝으로 프로축구연맹, 국군체육부대와의 연고 협약이 만료되는 김천이 시인 구단을 창단할 경우 K리그2에서 뛰게 된다

K리그 클럽규정에 따르면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구단은 K리그2 구단으로 가입되며, 군경팀을 운영하는 구단이 자체 연고 구단을 창단할 경우에

는 이사회가 참가 리그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선수 표준 계약서의 '구단 임금 체불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2개월 이상 연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동안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변경됐다.

15일이 지난 후에도 구단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FIFA RSTP(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를 반영했으며, 2026년 선수계약부터 개정된 계약서가 사용된다.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도 이뤄졌다.

이사회는 전원 의견 일치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한 전북 구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이고, 상벌위원회의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포츠 메카’ 해남서 우수 국대 선발전 열린다

6~8일 우슬동백체육관 전남도청 김민수 도전장

‘스포츠 메카’ 해남에서 우수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6일부터 8일까지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2026년도 우수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과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우수협회가 주최하고, 전남우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내년 9월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설 1차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자리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과 시·도협회장 추천을 받은 선수들만 참가해 열린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수 산타 -60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민수(전남도청)가 또 다른 아시안게임 메달을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민규(전남도청·태극권전능)도 아시안게임출전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도청 김민수

선발전에 앞서 해남은 우수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처음 우수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는 해남군은 11월 초부터 경기장, 우슬트레이닝센터, 전전후 육상경기장을 개방해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은 “해남군과 전남도, 전남도체육회의 지원과 관심으로 전국 우수인들이 대회 준비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선수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송원스포츠클럽

전국 교류전 배드민턴 준우승

광주 송원스포츠클럽이 최근 강진에서 끝난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서 배드민턴 준우승과 테니스 3위를 기록했다.

송원스포츠클럽(사진)은 배드민턴, 테니스 2개 종목에 유소년부·성인부 19명을 파견해 배드민턴 12세 이하부(전문)와 테니스 12세 이하부(취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송원스포츠클럽은 유아기 취미 프로그램부터 가족 참여형 수업, 전문선수 양성까지 이어지는 '생활-가족-전문' 구조를 통한 육성 시스템으로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한국, 여자핸드볼 세계선수권 결선리그 진출

조별리그서 카자흐스탄 35-17 격파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결선리그에 진출했다.

이계정 감독(삼척시청)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1일(현지시간) 독일 트리어에서 열린 제27회 국제핸드볼연맹(IHF)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6일째 조별리그 H조 3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35-17로 물리쳤다.

1승 2패를 거둔 한국은 조 3위로 결선리그에 올랐다.

32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이고, 각 조 상위 3개국에 2강 결선리그에 진출한다.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벌이는 결선리그는 4개 조로 진행되며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순위를 정한다.

이날 송지은(SK)이 6골을 터뜨렸고, 이원정(대구시청)이 5골을 넣으며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 골키퍼도 박세영(삼척시청)이 방어율 58%(11/19), 정진희(서울시청)가 40%(6/15)를 기록하며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조별리그 성적 2패를 안고 결선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G조에서 올라온 브라질(2승), 스웨덴(1승 1패), 체코(2패)와 결선리그에서 격돌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호점몽 : 고미아 개인전

일시 : 2025-12-05(금) ~ 2025-12-31(수)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1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 Winter Rhapsody'

일시 : 2025-12-12(금)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

